

iCOOP Discussion Meeting Report

Toward a Sustainable Community Development Model in Asia

Gurye Natural Dream Park 1st Anniversary Discussion Meeting

May 2015

Written by JI Min-jin
Translated by LEE Kyung-soo

iCOOP Co-operative Institute (foundation)

Toward a Sustainable Community Development Model in Asia

Gurye Natural Dream Park 1st Anniversary Discussion Meeting

Saturday April 18, 2015, 12:30~13:30
Gurye Natural Dream Park Conference Room (2F)
Organized by iCOOP KOREA
Hosted by iCOOP Co-operative Institute

JI Min-jin
researcher of iCOOP Co-operative Institute
Translated by LEE Kyung-soo

Discussion Meeting Outline	1
Program	
Participants	
아시아 지역사회 지속가능발전 모델을 위한 협력	3
in Korean (한글)	
Toward a Sustainable Community Development Model in Asia	10
in English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증진

Toward a Sustainable Community Development Model in Asia

Gurye Natural Dream Park 1st Anniversary Discussion Meeting

How to make a community with a live culture, environment and
youths?

How can social economy contribute to a sustainable community
development model?

Cooperation and solidarity for a finding and building a
sustainable development model

Saturday April 18, 2015, 12:30~13:30

Gurye Natural Dream Park Conference Room (2F)

Organized by iCOOP KOREA

Hosted by iCOOP Co-operative Institute

Moderator

KIM Hyung-mi, Director of iCOOP Co-operative Institute

Participants

KIM Gi-juhn, Congressperson, The New Politics Alliance for Democracy (NAPD)

KIM Hyun-dae, Director of Publish branch, The Hankyoreh

PARK Jin-do, Chairperson of board of directors, KPIA

PARK Woo-seop, Mayor of Incheon Nam-gu

SONG Kyung-yong, Chairperson of board of directors Seoul Social Economy Network, Joint-chairperson of GSEF

Woo Yoon-geun, Congressperson, NAPD

CHO Seong-gyu, Chair of iCOOP Association of Producer Groups

KIM Kyun-seob, Product Operation Manager of iCOOP UNION

OH Mi-yea, Chairperson of iCOOP UNION

PARK In-ja, Chairperson of iCOOP Consumer Activities

SHIN Seong-sik, CEO of iCOOP UNION

Kato Koichi, Chairperson of SEIKATSU CLUB Consumer's Co-operative Union

Elisita dos Santos, Chief of Department of Logistic, Timor-Leste

Ildio Ximenes da Costa, Secretary of State for Labor, Timor-Leste

Paul Alves, Director of Employment, Timor-Leste

구례자연드림파크 1주년 기념 간담회



지난 18일 구례자연드림파크 1주년 기념식에 앞서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는 ‘아시아 지역사회 지속가능발전모델을 위한 협력을 찾아’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형미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장의 진행으로 진행된 간담회는 사회적경제가 지속가능 지역발전모델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지속가능 지역발전모델 발굴과 협력을 다지고자 마련되었다. 이러한 고민은 2015년 이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실행 합의 등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 추구하고 유엔의 지속가능목표 책정을 위한 공개작업팀으로 활약하는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의 움직임과 궤를 같이 한다.

지역사회 발전, 협동조합의 윤리·사회 책임에서 찾다



상단 오른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일리디우 시메네스 다 코스타 노동부 장관, 카토 고이치 생활클럽생협 회장, 박우섭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먼저 지역사회의 발전 모델을 찾기 위해 iCOOP생협을 방문한 신생독립국가 동티모르의 참석자들을 대표하여 일리디우 시메네스 다 코스타 노동부 장관이 구례자연드림파크를 통해 본 지속가능발전모델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동티모르는 지역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나고 있어 이를 줄이는 게 과제죠. 구례자연드림파크에서 일자리를 창출해 도시로 떠났던 젊은이들을 끌어들이는 현장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적용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다 코스타 장관은 지역사회에 부리를 둔 기업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관광산업을 일으키는 데 힘을 쏟고자 하며, 그것이 전통문화와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으면서 지역사회의 가족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

하였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실현 가능성을 구례자연드림파크를 통해 엿보았다 말했다.

한편 iCOOP생협과 함께 ICA 지속가능성 자문그룹으로 활동하고 있는 일본 생활클럽생협연합회의 카토 고이치 회장은 협동조합의 윤리적·사회적 책임은 지속가능한 발전과 연계되지 않을 수 없으며 'FEC자급권(식량Food, 에너지 Energy, 돌봄Care 자급권)'을 실현하는 것이 생협, 특히 동아시아 국가 협동조합의 사명임을 피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년 전부터 시행된 일본생활클럽생협의 '민중교역'(공정무역)과 '아시아민중기금' 운용 실천사례를 들며 이러한 활동 지평을 넓히기 위해 앞으로도 iCOOP생협과 교류하는 자리가 더 많아지길 기대하였다.

이에 대해 박우섭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은 도시행정 경험을 통해 지역의 문제 해결 능력을 지역이 갖고 있지 못한 상황을 논하며 그 이유로 지역주민의 협력 부재와 공동체 파괴를 들었다. 또한 지역사회에 뿌리를 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주민이 지역문제 해결의 주인이 되어야 하며 협동조합 운동이 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하였다.

협동조합, 협력을 통한 지역재생

박진도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이사장은 '자기조정적 시장(self regulating market)'의 세계적 확장인 세계화가 일자리 및 소득 양극화, 자원고갈, 환경파괴를 가져와 지속가능성을 잃게 하였고 한국의 과거 성장제일주의도 이러한 한계를 지닌다'고 하였다. '식량, 에너지, 돌봄 자급 또한 글로벌 시각이 아닌 지역적 시각으로, 개인이 아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연대와 협동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고 그 해결의 주체는 넓게는 사회적경제, 좁게는 협동조합일 것'이라며 협동조합의 역할을 되짚었다.

김현대 한겨레신문 출판국장 또한 시민의 힘으로 민주화를 이룬 한국사회가 행복추구를 위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데 있어 복지와 사회적경제의 중요성



상단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박진도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이사장, 김현대 한겨레신문 출판국장, 오미예 iCOOP생협사업연합회 회장, 조성규 iCOOP생산자회 회장

을 들었다. 복지는 행복의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며 행복의 내용을 채우는 것은 사람, 공동체, 지역, 연대에 뿌리를 둔 사회적경제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오미예 iCOOP생협사업연합회장은 “협동조합, 사회적경제, 지방 정부 등 간담회에 다양한 주체들이 모였듯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지방 및 중앙정부, 시민의 협력이 없어서는 안 되며 이러한 협력으로 가능했던 구례 자연드림파크가 하나의 사례가 되어 앞으로 그 경험을 나누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협동조합, 사회적경제의 정신일 것”이라 말했다.

조성규 iCOOP생산자회 회장 또한 “구례자연드림파크는 조합원, 생산자, 지자체 등 관심을 지닌 사람들의 협동을 통해 가능했고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 모델을 보여주는 실례”라며 “행복의 조건, 사회적경제를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는 협동에서 시작될 것이고 또한 이것이 구레 너머 괴산 그리고 동티모르와 같은 아시아 국가에서도 협동만 할 수 있다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소회를 밝혔다.

지속가능발전의 기반, 법제도 개선



왼쪽부터 차례로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김기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

한편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왼쪽)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입법 자로서의 의지를 밝혔다. “사회·경제·문화 측면에서 지역격차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구레자연드림파크는 소규모 도시에 생협이 어떠한 바람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사회적경제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역할 발휘의 토대는 미미하다는 현실을 지적하며 사회적경제에 관한 특별법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특히 지역과 경제, 사회, 환경이 조화를 이뤄 지역격차를 해소하는 좋은 모델을 iCOOP생협이 계속해서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하였다.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또한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에 대해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할 때임을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들어 얘기하며, 이것이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며 양극화, 환경문제 등은 세계 곳곳에서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라 짚었다. 그리고 그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의

제를 바탕으로 국가의 정책기조를 세워야 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고민 없이는 지역차원의 노력에 한계가 있음을 피력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해서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경제조직의 영역이 확대될 때 다른 사적 및 공적 부문도 점차 사회가치를 중심에 두면서 운영되어 한국 사회가 지속가능한 사회로 변화할 수 있을 것이라 하였다.

화두. 지속가능발전의 근간,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일한다는 것



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송경용 GSEF 공동의장, 신성식 아이쿱생협사업연합회 CEO, 간담회 모습.

송경용 GSEF 공동의장(왼쪽)은 “협동조합, 특히 생협은 개인의 욕망을 협동 조합 방식으로 조직하여 공공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운동일 수 있으며 어떻게

그 영향력을 확대해갈 것인가는 개인의 욕망을 어떻게 사회화 할 것이냐, 공공성을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에 달려 있고 iCOOP 생협의 공공성 강화 운동, 지역과의 협력 또한 사회적 경제의 다른 주체들과의 실질적 협력과 연대로 확대해가면 보다 넓고 깊이 있게 발전해갈 수 있을 것”이라 하였다.

나아가 “구례와 괴산 클러스터는 이와 같은 사례로서 한국사회의 사회적경제 발전에 발전소, 용광로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아시아 사회적경제 비즈니스 스쿨 창설 등을 통해 아시아 각 나라의 활동가, 정부기관, 지도자들이 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 전반에 대해 실천적이고 실제적인 훈련과 학습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바람을 밝혔다.

신성식 iCOOP생협사업연합회 CEO는 실천적이고 실제적인 교육훈련기관의 필요성에 대해 동감하나 보다 실무자의 입장에서 사회적경제 영역의 문제를 제시하였다. 신성식 CEO는 현재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커진 것에 비해 사회의 큰 흐름을 바꿔내지 못한 이유 중 하나로 인재 부족의 문제를 들었다. 활동과 가치를 정의하는 사람은 많으나 비즈니스를 조직하고 실무를 지원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고, 그 이유로 역량 있는 실무자들이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받는 보수와 대우가 다른 영역과 큰 간극을 보임을 꼽았다. 실제적인 교육훈련의 중요성 이전에 사회에서 가치 있고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현실의 문제가 보다 핵심 과제일 수 있음을 피력하였다.

사회적경제 인재 풀의 문제에 대한 공론화 과제와 함께 간담회에서 나는 이야기들이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실천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는 바람으로 지역사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 모색의 자리는 마무리되었다.

Toward a Sustainable Community Development Model in Asia



iCOOP Co-operative Institute (foundation) held a discussion meeting under the theme “Toward a Sustainable Community Development Model in Asia” before the Gurye Natural Dream Park 1st anniversary ceremony in April 18. The meeting hosted by KIM Hyungmi, the director of iCOOP Co-operative Institute was to share ideas and concerns about the possible way of social economy’s contribution to sustainable community development and to promote model building and cooperation among stakeholders. It was in line with the efforts of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United Nations in makin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as the next development agenda after 2015 and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one of the main promoters in shaping UN Post-2015 Sustainable Development Agenda.

Community Development Focuses on the Ethical and Social Responsibility of Co-operatives

Ilídio Ximenes da Costa, the Secretary for Employment Policy and Vocational Training of Timor-Leste presented his thoughts on sustainable development model in Gurye Natural Dream Park. He and others from Timor-Leste visited iCOOP KOREA to find an inspiration for community development model. He said that “the current problem of Timor-Leste is that the local youth are leaving community to find jobs in cities. Gurye Natural Dream Park is definitely a good learning and application model since it re-attracts youth through job creation.” Secretary da Costa sought to develop community-based tourism industry with the partnership of enterprises that will invigorate local household economy without destroying traditional culture and natural environment. He told that he could see a concrete possibility in the Gurye Natural Dream Park.

Kato Koichi, the president of Seikatsu Club Consumers' Co-operative Union (SCCU) in Japan, another member of ICA Sustainability Advisory Group with iCOOP KOREA, emphasized the ethical and social responsibility of consumer co-ops. He explained that the co-ops' responsibility is closely linked with sustainable development and proposed that consumer co-ops, especially East Asian co-ops' mission should be the realization of the “FEC Self Sufficiency Rights”¹⁾. Seikatsu Club has

* Uchihashi Katsuto, an economic commentator of Japan, advocated the FEC Self-Sufficiency Sphere as new key industries. In FEC Self-Sufficiency sphere, F Stands for Food, E stands for Energy and C stands for Care. He thinks that

practiced “People to People Trade” (Fair Trade) and “Asian Peoples Fund” for that mission for more than 20 years. He expects to expand these activities, hopefully in cooperation with iCOOP KOREA.

PARK Woosub, the mayor of Incheon Nam-gu Office, added the problem of the absence of problem solving capacity in local communities from his urban administrative experience. He explained that cause is the lack of cooperation among local community residents and community destruction and suggested the importance of residents’ active participation in community problem solving for sustainable community development. He believes that local community participation could be enhanced by co-operative movement.

Community Regeneration through Co-op Cooperation

PARK Jin-do, the chairperson of the board of Karl Polanyi Social Economy Institute (KPIA) pointed out the problem of globalization, the global expansion of “self-regulating market”, such as job opportunity and income polarization, resource exhaustion, environment destruction which all contributed to the loss of sustainability. He also stressed that the Korea’s past growth-first policy had the same effect and limits. Envisioning the solution, he emphasized the inevitability of countering it, especially in self-sufficiency of food, energy, and care through solidarity and cooperation based on local perspective instead of global and social relation rather than individual isolation. He also emphasized the

these key sectors’ activities should be excluded from free trade agreement to counter the ongoing hazardous effects of globalization.

role of co-ops by advocating the social economy sector or co-operative sector in narrow sense to be the driver in the process. Kim Hyun-dae, the publication branch director of the Hankyoreh, also pointed out the importance of welfare and social economy. In advancing to the next step for happiness after achieving democracy through the power of citizens, the welfare which provided the condition for happiness and the social economy based on people, community, locality, and solidarity which provided the contents of happiness were crucial, according to him.

OH Mi-yea, the president of iCOOP UNION stressed the collaboration of local and central government and citizens in building sustainable society. Indicating the discussion forum with various actors' participation from co-ops, social economy enterprises, and local government and the building of Gurye Natural Dream Park, she urged to share the co-operative experience to make the co-op and social economy movements flourish. Further, CHO Seong-gyu, the chairperson of iCOOP Association of Producer Group also recognized the Gurye Natural Dream Park as a live case of community development model which came into existence through the cooperation of interested parties including co-op members, producers, and local government. With an emphasis on the social economy built by cooperation, he hoped to realize the cooperative potential in Goesan and hopefully in other Asian counties like Timor-Leste.

Legal and Institutional Reform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e legislator's perspective was introduced in the discussions as

well. WOO Yoon-geun, the floor leader of the New Politics Alliance for Democracy (NPAD) showed his determined will for social economy development.

“Guyre Natural Dream Park shows the consumer co-op’s contribution in invigorating a small city from a widening gap in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aspects between locals and regions. However, the supporting base for social economy’s role in local economy is insufficient in Korea. I will endeavor to pass a special law for social economy in order to support the social economy sector.”

He also expected iCOOP KOREA to build a good model which would contribute to addressing the regional gap problem by incorporating local community, economy, society, and environment.

KIM Ki-jun, the congressperson of NAPD also stressed the importance of sustainable development model. He paid a particular attention to the local communities’ economic struggle where not only Korea but also worldwide communities encounter in economic polarization and environmental problems. To remedy the problem fundamentally, he proposed to develop a national policy based o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agenda since local efforts might confront limits without central support and action. He envisioned Korea’s transformation to sustainable society where other private and public sector put more weight in social value in their operation following social economy sectors’ development based on the national policy.

The Meaning of Working in Social Economy Sector, the Basis of Sustainable Development

SONG Kyung-yong, the joint-president of Global Social Economy Forum (GSEF) pointed out that consumer co-op movement was to realize individual desire in co-operative way to address public problems and its success depended on the socialization process of desires and the expansion of publicness. He suggested that iCOOP KOREA would make broad and deep development by strengthening its publicness movement and enhancing concrete cooperation and solidarity with local community and other social economy actors and Gurye and Goesan clusters would be an engine for Korean social economy development. In addition, he expected to build a platform for practical learning and training for Asian co-op activists, leaders and government officers such as the Asian social economy business school.

Agreeing with the need of practical education and learning institution, Shin Sungsik, the CEO of iCOOP Union pinpointed the problem of social economy sector from the practitioner's perspective. According to him, the main challenge of social economy in Korea was the lack of human resources which was also recognized as a cause for failing to make a prominent transformation in Korean society even with the impressive growth in interests and importance. That is, although there were many who could define and explain the social value and activities of social economy sector, only few actually work in businesses organization and operation.

Since he thought the reason for delaying human resource

development is the insufficient reward and wage in social economy sector compared to other private sector, he advocated prioritizing solving critical human resource problem such as providing adequate reward and making their work socially valued ahead of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The discussion meeting was closed with a suggestion for publicizing the lack of social economy talent pool and a hope for putting these ideas into action.

iCOOP Discussion Meeting Report
Toward a Sustainable Community
Development Model in Asia

발 행 2015. 5.

발행인 이정주

발행처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152-716 서울시 구로구 연동로 320 성공회대학교 일만관 2B204호

전 화 02-2060-1373

팩 스 02-6499-1372

홈페이지 <http://icoop.re.kr>

E-mail icoop-institute@hanmail.net

BLUEPRINT FOR A CO-OPERATIVE DECADE

<http://www.icoop.re.kr>

<http://www.facebook.com/icoopinstitute>

icoop-institute@hanmail.net

TEL 02)2060-1373

FAX 02)6499-1372

서울특별시 구로구 연동로 320(항동) 성공회대학교 일만관 2B 204호